



제17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영주 경륜훈련원을 비롯한 영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총 71개 팀 351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일반부 4km 단체추발 경주.

제2의 박성백·공효석을 찾아서...

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스타트

9~14일 경북 영주 개최...총 351명 참가
개인추발·힐클라임 단체추발 등 7개 종목

“제2의 박성백, 공효석을 꿈꾼다!”

대한민국 사이클의 미래를 열어야 할 꿈나무들의 열띤 대회가 펼쳐진다. 제17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경북 영주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교, 대학 및 실업 71개 팀 351명이 참가해 최고의 철각을 겨룬다.

남자 중등부에선 서울체육중, 송파중 등 24개교 106명이 참가하고, 여자 중등부에선 광주체육중, 감천중, 경북체육중 등 10개교 23명이 폐달을 굴린다. 남자 고등부에선 서울체고를 비롯

해 대구체고, 울산동천고, 가평고 등 17개 학교에서 110명, 여자 고등부에선 서울체고, 대전체고 등 10개교 40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남사대하·일반부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레일사이클단, 국군체육부대, 한국체대 등 10개 팀 72명이 출전한다.

경기종목을 보면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남녀 중등부는 개인추발, 단체 스피린트, 단체추발 등 각각 7개 종목이며 남·녀 고등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힐클라임 단체추발 등 각각 8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뽐낸다. 또 일반부는 9일부터 14일까지 크리테리움 힐클라임 등 9개 종목에 걸쳐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3일(일) 열리는 힐클라임 경주다. 영주시민운동장을 출발해 신전교차로, 백리삼거리, 지나 풍기온천리조트를 거쳐 죽령까지 총 21.5km의 코스다. 평지에서

출발해 산 정상까지 오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또한 15일(화)에는 영주 시내 3.3km의 순환코스를 10바퀴에서 14바퀴 순환하면 벌이는 크리테리움 경주도 펼쳐진다. 크리테리움은 사이클에서 일반도로와 가까우면서 폐쇄적이며 여러 특정 구간으로 구성된 코스를 말한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의 모태가 된 전국사이클대회는 지난 1999년 국내 사이클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시작됐다.

2016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대회를 겸한 이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주관하며 영주시가 후원한다. 개최식은 9일 오전 11시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열린다.

연재 기자 soi@donga.com

정종진 13연승...후반기 최고 철각 우뚝

지난주 3승 추가로 33승...다승 공동 1위
20일 스포츠동아배, 룬런 향안 시험무대

정종진의 고공행진은 계속될까. 요즘 경륜에서 최고의 핫스타는 정종진(20기)이다. 그는 6월말 '별들의 전쟁'이었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에서 수도권권의 대표주자로 출전해 깜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후 두 달이 넘게 무패행진을 기록 중이다. 무려 13연승이다. 정종진은 지난 주 다시 3승을 추가해 33승으로 박용범과 함께 다승 공동 1위로 뛰어 올랐다.

●13연승에 신애까지 등극

지난주 또한 정종진의 한 주였다. 정종진은 6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광명 제35회차 신애왕전 결승전에서도 우승을 일궈내며 올 시즌 하반기 기록을 최고의 철각으로 떠올렸다.

1, 2일차 예선을 가볍게 1위로 통과한 정종진은 결승전에서 역시 우승후보들이었던 21기원투 펀치 성낙승(25) 황인혁(27)을 비롯해 19기 에이스인 류재열(19) 등 만만치 않은 선수들과 만났다. 총소리와 함께 경주는 시작됐고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파악하던 그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일제갑치 승부를 띄웠다. 폭풍 같은 질주가 이어졌고 추월을 허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19기 류재열(28)이 2위로 끝났고 17기 이정우(27)가 3위를 차지했다. 기대를 모았던 21기 '신인왕' 성낙승은 6위, 황인혁은 5위를 차지



"내가 왕이다." 정종진(노란니뽀)이 6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경륜 신애왕전에서 추입시점을 노리며 류재열(흰색니뽀)의 추미를 달리고 있다. 정종진은 이날 우승을 포함해 3연승을 올리며 최근 13연승을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지해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20일 스포츠동아배 룬런 분수령

정종진은 20기 수석 졸업생이다. 훈련원서 교육을 총괄했던 김태환 교관은 이미 그를 '미래의 에이스'로 꼽았다. 올해로 데뷔 3년차의 신인급이다. 정종진은 덕산중학교 시절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사이클에 입문했다. 그의 순발력과 근력 등 타고난 '펀더멘탈'을 선생님은 '필성부른 떡잎'으로 알아봤다. 서울체고로 진학했고 졸업 후 실업팀 부산경륜공단과 상무를 거쳤다. 주 종목은 중장거리. 제23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 사이클 개인도로단체서 1위, 제53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 단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아마시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늘 2인자

3인자였다. 태극마크도 달지 못했다. 경륜 데뷔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훈련원마저 삼수를 거칠 만큼 통과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준비했다. 그리고 당당히 수석으로 졸업했다.

정종진의 장점은 멀티 플레이어. 즉 다양한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선행과 마크 추임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데다 최근 시야가 넓어지며 운영 능력까지 급상승, 성적의 꾸준함까지 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13연승의 쾌속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정종진에게 기대의 분수령은 오는 20일 열리는 스포츠동아배 단체경주다. 만약 스포츠동아배에서도 우승한다면 당분간 그의 시대가 될 듯하다. 연재 기자

30승 선착 김효년, 역대 경정 최다승 도전

남은 시즌 50% 승률만해도 45승 페이스
김효년(41·2기·사진)이 가장 먼저 30승 고지에 올랐다.

김효년은 지난주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 시즌 28회차 경주에 3회 출전해 2승을 추가하며 30승 고지를 터치했다. 최근 7연승을 질주하며 바짝 뒤쫓고 있는 어선규(37·4기)의 가파른 상승세에 긴장하고 있던 타라 이번 2승의 의미는 단순 2승을 넘어선 것이었다. 30승 고지를 가장 먼저 돌파한 그는 이로써 지난해 어선규에 쫓겼던 다승왕 타이틀 탈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효년은 지난주까지 올 시즌 총 17회 51경주에 출전했다. 이 중 승수를 쌓지 못한 회차는 14회와 25회 두 번에 불과했다. 나머지 15회

에서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승리를 일궈냈다. 승리하지 못한 회차에서도 2착·3착이 대부분이었다.

경정 A1급 선수들의 연간 평균 출전 경주수가 80경주 정도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김효년의 출전 기회는 30여 경주 이상 남아있다. 따라서 좀처럼 꺾이지 않은 이런 상승 추세라면 남은 시즌 50%의 승률만 올린다면 해도 45승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년의 다승왕 가도의 변수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즌 세 번째 대상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인 어선규를 넘어야 하는 만큼 그가 과연 이번 대상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다승왕 탈환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43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했던 김효년



이 올 시즌 다승왕을 넘어 경정의 새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역대 최다승기록 도전이 그것이다. 역대 경정 최다승기록은 2005년과 2006년 서화모(41·1기)와 우진수(39·1기)가 각각 올렸던 49승이 최고다.

김효년이 과연 남은 시즌 본인이 세운 기록을 경신하며 자신의 경정인생을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재 기자 soi@donga.com

세계 35개국 명궁들 청주에 모인다

18일부터 6일간 전통 활쏘기 행사
미국·독일 등 600여명 동호인 참가

생활체육 7330 국민생활체육(화장강 영중)가 세계

전통 활쏘기 축제인 제9회 세계민족궁대축전을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다.

세계민족궁대축전은 우리나라 전통 활인 국궁을 세계에 전파하고 다양한 나라의 민족궁을 보존하기 위해 2007년에 시작된 대회다.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세계민족궁대축전은 9년간 매년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국궁을 세계화하고, 지구촌 각 국가의 민족궁을 알리는 전통 활쏘기 최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대회 첫 해에는 21개국이 참가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브라질, 몽골, 러시아 등 35개국 600여 명의 활쏘기 동호인이 참가한다. 한국은 초·중·고·일반부 및 여자부로 편성된 다양한 연령층의 동호인들이 세계인과 함께 기량을 겨룬다. 참가자들은 18일 선수등록 완료 후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민족궁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19일에는 청주종합운동장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21일에는 각국의 전통 활쏘기 학술자료를 발굴 및 교류를 위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 전통 활쏘기 축제인 제9회 세계민족궁대축전이 18~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충북 단양군에서 열린 대축전 모습. 사진제공: 국민생활체육회

경기종목은 각 나라의 민족궁을 시연하는 시연대회와 민족궁 경기(개인전·국가대항전), 원사(멀리쏘기) 및 집중사 경기로 나뉘어 펼쳐진다. 경기는 특색과 선호도가 높은 7개국(미국·헝가리·타기·중국·일본·몽골·한국) 민족궁의 경기방법을 채택하여 진행된다.

표적도 흥미롭다. 미국의 표적은 사슴, 돼지 등 동물모양의 과녁이며 몽골은 뽕조림통 모양의 과녁을 사용한다. 참가 국가는 국가별 전통 민속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세계민족궁대축전이 국궁 장비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 국궁의 세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국궁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우승후보 ◎우승도전 ○상대 불복병 10일

경기	선수	나	체	합	승	패	무	승률	이	승	승
제1 경주 일반경주(1,800m)12:20											
1	12 유승민	29	57	61	50	56	3	62.5	83	26	4
2	1 오세준	40	61	51	9	0	37.5	43.8	68	33	8
3	3 이지수	35	59	3	56	0	12.5	31.3	6	26	14
4	8 한영호	32	59	6	42	31.6	47.4	63.2	56	54	10
5	3 서지현	33	58	4	14	7.1	21.4	35.7	23	18	0
6	1 황만주	44	63	4	89	11.3	33.4	44.4	63	25.4	7
제2 경주 일반경주(1,800m)12:40											
1	3 박정아	36	48	6	47	11.8	41.2	70.6	105	16.7	0
2	4 구원규	37	63	8.3	62	5.75	0	87.5	40	17.4	8
3	11 김경서	31	58	3.76	5.9	11.8	29.4	38	28.6	0	0
4	1 박승원	43	57	5.07	14.321	4	50.9	59	28	37	12
5	9 신원경	40	60	2.94	0	6.3	18.8	28	37.1	10	0
6	9 신원경	35	53	5.36	7.1	28.6	50.0	58	19.3	11	0
제3 경주 일반경주(1,800m)13:00											
1	9 홍기철	33	64	5.24	5.9	35.3	52.9	86	25.6	15	0
2	1 박현성	43	55	6.06	25.0	50.0	56.3	14	41.6	10	0
3	12 강영길	32	62	3.25	6.3	18.8	25.0	66	33.6	0	0
4	7 김승택	35	64	6.40	26.7	33.3	73.3	50	37.3	12	0
5	1 강원규	42	61	3.36	7.1	21.4	28.6	49	37.3	0	0
6	2 사재준	41	60	4.89	16.7	27.8	44.4	24	25.8	11	0
제4 경주 일반경주(1,800m)13:20											
1	4 이광규	36	60	6.00	33.3	53.3	66.7	43	48.4	0	0
2	11 김영민	32	57	5.38	25.0	37.5	50.0	94	30.7	13	0
3	1 이태희	44	56	7.16	36.8	57.9	78.9	73	16.9	12	0
4	1 박승원	43	57	4.71	7.1	28.6	50.0	28	37.1	10	0
5	9 신원경	42	53	3.73	0	13.3	26.7	92	28.8	14	0
6	8 전두석	35	58	5.07	7.1	28.6	50.0	11	30.1	0	0
제5 경주 일반경주(1,800m)13:45											
1	1 김원규	46	58	4.50	7.1	42.9	42.9	20	35.7	13	0
2	12 이상민	31	57	2.40	0.0	0.0	13.3	76	43.3	0	0
3	6 권영철	34	60	5.58	15.368	8.368	57.9	16	28.5	0	0
4	4 어선규	37	57	9.1864	7.882	9.41	25	38.3	15	0	0
5	1 조원규	47	60	4.17	11.1	11.1	50.0	21	36.5	0	0
6	4 민영진	39	59	6.13	3.40	0	73.3	17	18.5	14	0
제6 경주 일반경주(1,800m)14:10											
1	4 박성현	36	60	5.88	35.341	2	47.1	75	26.9	15	0
2	1 김원규	46	58	5.18	11.823	5	58.8	4	35.6	0	0
3	13 박승원	40	57	5.39	13.353	3	60.0	110	46.0	0	0
4	8 김원규	30	53	6.51	11.333	4	60.0	110	36.0	0	0
5	6 손태민	33	58	7.7838	9.667	83.3	12	36.0	13	0	0
6	2 윤영일	41	57	4.07	7.1	28.6	35.7	91	20.5	0	0
제7 경주 일반경주(1,800m)14:35											
1	1 황만주	44	63	4.89	11.3	33.4	44.4	63	25.4	7	0
2	1 이택근	42	60	3.94	12.5	18.8	31.3	74	41.7	15	0
3	4 경상우	44	58	5.93	26.7	40.0	60.0	30	24.6	0	0
4	4 박승원	37	58	5.17	8.3	41.7	50.0	82	38.3	0	0
5	7 배해민	34	56	5.18	15.368	57.9	101	41.7	0	0	0
6	10 김원규	32	59	5.53	0	41.2	64.7	2	30.2	7	0
제8 경주 일반경주(1,800m)15:00											
1	7 윤동오	32	59	6.00	23.541	2	52.9	81	36.9	0	0
2	1 김지현	37	61	3.75	0	6.3	43.8	62	38.8	14	0
3	11 김원규	40	58	5.39	13.358	70.3	15	54.4	0	0	0
4	8 김원규	30	57	6.50	13.353	3	60.0	110	46.0	0	0
5	1 오세준	40	61	5.19	0	37.5	43.8	68	33.9	1	0
6	4 구원규	37	63	6.32	62.575	0	87.5	40	17.4	2	0
제9 경주 일반경주(1,800m)15:25											
1	1 황만주	44	61	6.55	15.040	0	60.0	108	41.7	0	0
2	12 조성민	27	60	4.47	13.320	0	40.0	64	38.8	0	0
3	4 신동원	37	59	7.20	40.060	0	73.3	3	46.0	0	0
4	2 김원규	43	52	5.24	11.835	3.7	41	36	28.0	0	0
5	1 한지현	34	58	4.14	0	11.8	35.3	52	28.7	0	0
6	1 한지현	39	59	5.14	28.635	42.9	109	44.2	15	0	0
제10 경주 일반경주(1,800m)15:50											
1	4 이흥우	40	60	7.94	0	6.3	18.8	28	37.1	2	0
2	8 한영호	32	59	6.42	31.647	4	63.2	58	54.8	0	0
3	8 한영호	30	57	5.39	13.358	70.3	15	54.4	0	0	0
4	1 김원규	40	60	4.06	16.718	7.1	28.6	35.7	28	19.8	0
5	1 오세준	40	61	5.19	0	37.5	43.8	68	33.9	1	0
6	4 구원규	37	63	6.32	62.575	0	87.5	40	17.4	2	0
제11 경주 일반경주(1,800m)16:15											
1											